

자연의 순환과 인간 윤리의 길

작가 에세이

탁현수

문학박사·수필가
호남대 외래교수

이른 아침 눈을 뜨자마자 마당으로 나선다. 초봄부터 시작한 뜰 가꾸기의 매력은 동장군이 북풍한설을 앞세워 멈춤이란 명령을 내리기 전까지는 손을 놓을 수가 없다. 훈풍을 가득 실은 봄 햇살이 울안을 넘나들면, 황막하게 언 땅을 뚫고 뚝뚝뚝 여러 잎을 틔우는 신비롭고 경이로운 일이 화단 가득 벌어진다. 날이 갈수록 농염하고 그윽해지는 햇살과 바람의 요술에 흥매를 앞장세운 진달래, 꽃앵두, 금낭화, 매발톱, 제비꽃 등이 그 야말로 곱디고운 봄 잔치를 펼친다.

신기한 일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겉으로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으로 보이는 그들이지만, 발 아래를 세심히 들여다보면 늦봄을 장식할 섬초롱, 애기달맞이꽃, 대나물, 우단동자 등의 어린 잎들을 끌어안느라 허리조차 펴지 못한 것들이 많다. 화단의 흙을 담아 키우는 화분 안에서도 어김없이 공생의 모습을 만날 수 있다. 백합과 봉숭아, 석죽과 용담, 돌나물과 개미취, 달맞이꽃과 국화 등 개화기가 서로 다른 꽃들이 계절의 순환에 순응하며 함께 살아가는 모습은 마치 한동지에서 고락을 같이하는 가족을 보는 듯도 하다.

하지만 자연의 질서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다. 인내와 희생과 포용은 물론이고 시간이라는 그들만의 엄격한 조율 속에서 피워내고 또 스러지고를 반복한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맞물려 안고 돌아가는 순환의 톱니바퀴는 스스로 멈출 수도 없고 멈춰서도 안 된다. 마치 애면글면 후손들의 앞날을 끌어안고

험난한 인생 바다를 유영하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랄까.

다산 정약옹은 인간 삶 속의 윤리 근간을 효(孝), 제(弟), 자(慈)로 정의한 바 있다. 효란 부모는 물론 임금을 포함한 모든 연장자에 대한 예로 인간관계의 뿌리 역할을 한다고 했으며, 제는 친구, 형제, 동료 등 수평적 관계의 우애로 인연과 신의가 중시된다고 보았다. 자는 임

“하늘의 선택이기에 스스로는 깰 수조차 없는 부모, 자식 간의 숙명적인 인연. 요즈음 부쩍 그 천륜이 무너지는 소리가 세상을 아프게 하고 있다. 숭고한 인연으로 세상에 왔건만, 피어보지도 못하고 스러지는 아이들. 그것도 부모에 의해서라니...”

금이 백성을, 부모가 자식을, 또는 스승이 제자를 사랑하는 등의 윗사람이 아랫사람에 대한 자애이며 도리라고 했다. 개인적인 관계를 뛰어넘어 인류적인 차원으로 넓게 해석한 다산의 인간 윤리 중 다산 자신이 가장 마음에 담고 중하게 여겼던 것은 자의 실천이었다. 윗사람이 사랑의 싹을 잘 틔워내야 아랫사람에 이르러 더욱 숭고하게 피어난다고 생각했던 듯하다. 더구나 다산은 아버지로서 자식을 사랑하고 교육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18년 동안이나 남녘 땅끝에서 유배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다. 어찌지도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두 아들에게 보낸 서간문들은 편 편마다 곁에서 지켜보며

보살피듯 간곡하고 애뜻할 수밖에 없었다. 해배의 순간까지 제자 교육에 열중했던 것도 그런 정신의 연장선상에서가 아니었을까 한다.

인간으로서, 그중에서도 부모로서 자손이 번창하고 잘 자라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순리이며 이 세상이 영위될 수 있는 순환의 고리다. 다산 역시 자는 본능적이고 원초적인 인(仁)의 덕목으로 오히려 가장 실천하기 쉽다고 표현했다. 달포 전 50년 지기 친구가 생사의 고비를 넘나드는 큰 수술을 받았다. 중환자실에서 겨우 의식을 찾으면서 했던 첫말이 손주 얼굴을 한 번만이라도 보고 죽게 해달라고 누군지도 모르는 절대자에게 간절히 애원했노라는 고백이었다. 하나뿐인 아들은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자신이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릴지도 모르는 마지막 순간에 그 자리를 대신해 줄 거라고 믿는 후손을 바라는 것은 더할 수 없는 본능일 것이다.

하늘의 선택이기에 스스로는 깰 수조차 없는 부모, 자식 간의 숙명적인 인연. 요즈음 부쩍 그 천륜이 무너지는 소리가 세상을 아프게 하고 있다. 숭고한 인연으로 세상에 왔건만, 피어보지도 못하고 스러지는 아이들. 그것도 부모에 의해서라니... 왔던 꽃이 진 자리에 새로운 꽃이 다시 오고 그 꽃이 또 세월과 함께 사라지는 자연의 원칙과 방식은, 스스로 그렇게(自然) 될 수밖에 없는 까닭(所以然)에 순응하는 참다운 모습의 본보기가 아닐까. 이처럼 ‘절로 절로’의 섭리는 다산을 위시한 선인들에게 있어서도 참된 인생살이의 정답으로 가는 길목 즈음으로 여겼던 듯하다. 순연한 마음으로 화단을 안고 회한 없이 기꺼이 떠나리라 믿으며, 희망의 햇살을 온 마음 가득 받아 안는다.

한해를 보내면서

기고

김정동

수필가·시인



2023년 검은 토끼의 해가 서산에 꼬리를 감추고 있다. 이맘때가 되면 누구나 즐거웠던 일, 슬펐던 일 등 많은 생각이 떠오르게 된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즐거운 마음이 드는 이는 많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것은 없고 그저 허한 마음 뿐, 나이만 한살 더 먹어가니 그럴 수밖에 없다.

젊은 시절에는 연말이면 친구들과 시내를 쏘다니는 것만으로도 즐거웠다. 더 어릴 적 이맘때는 뒷동산에서 나무를 잘라다가 팥이를 깎거나 시누대를 얹게 쪼개어 창호지를 붙여 방패연을 만들고 시냇가에서 얼음을 지치느라 한나절을 보냈었다.

세월이 백구과극(白駒過隙), 흰 송아지가 지나가는 것이 문틈으로 보이듯이 인생이란 순식간에 흘러간다고 했다. 이제 거의 백발이 성성한 나이가 되고 보니 한해를 보내면서 온갖 회한이 다 든다. 인간이란 삶에 속고 속으면서 내년에는 좀 더 나아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다. 그런 마음은 옛 사람이나 현

대를 살아가는 사람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다. 조선후기의 실학자 이덕무(李德懋, 1741~1793) 선생의 “한해를 보내며”라는 시가 생각난다.

一生心疏懶 일생심소라

每於除夕悲 매어제석비

長懷除夕心 장회제석심

新年好人爲 신년호인위

평생 마음이 게으르기에 매번 설날그믐이 슬퍼진다네 늘 그믐날에 이 마음 품는다면 새해에는 좋은 사람 될수 있건만 (歲時雜詠 세시잡영에서)

이덕무 선생은 제야(除夜)의 밤을 반성의 시간으로 삼았다. 21세 때 한 해를 전송하는 글 전신사서(錢辛巳序)에서 “물론이 오늘밤은 어떠한 밤인가. 어린 아이들의 기쁨은 크겠지만, 사실 해를 더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해를 줄이는 것이니 늘어가는 화포가 적지 않다. 마치 천리 먼곳에 벼를 떠나보내는 것처럼 마음이 슬프다. 푸른 촛불의 그림자가 바야흐로 길기만 하구나”라고 탄식했다. 또 ‘갑신제석기(甲申除夕記)’에서는 그 해 9월 9일부터 설날그믐까지 100여 일 동안에 공부한 것을 돌아보면서 그 공과를 기록하고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입으며 편안히 있으면서도 가르침이 없으면 바로 짐승에 가깝다.” “하루를 독서하지 아니하면 털구멍이 모두 막힌다.”는

옛말을 든 다음 성실하게 공부하지 못한 자신을 돌보았다.

게으른 사람은 설날그믐이 바쁘고 후회스런 법이다. 그래도 설날그믐에 후회했던 마음을 신년에 그대로 유지할 수만 있다면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가르침이다. 이덕무의 벗 박지원(朴趾源)은 설날 아침 거울을 보고 ‘두어 올 검은 수염 갑자기 돋았지만 육체의 신장은 조금도 자라지 않았네. 거울 속 얼굴은 해를 따라 달라지건만, 자라지 못한 마음은 지난해나 그대로 일세라고 하였다. 외모는 세월을 따라 늘어가는데도 마음이 그에 맞게 성숙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한 것이다.

한 해를 보내면서 오늘 묶어둔 끈이 내일이면 다시 헐렁해진다는 말이 있듯이 자신을 반성해 보고 우리 주위의 불우 이웃이나 저소득층을 살펴보는 연말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가오는 2024년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이다. 민생을 살피는 국회, 특히나 사회에 첫발을 내딛어 보지도 못하고 좌절하고 있는 청년실업은 해결 되어야 할 선결 문제이다. 우선 취업이 되어야 결혼을 하고 저출산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출산율에는 소득, 주거, 경쟁, 교육, 사회문화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출산 대책은 무엇보다 중요하리라 생각해본다.

기고 김남주 전 서울 SH공사 노원센터장



고향 후배를 마지막으로 배웅하며

2023.12.9.토요일,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나는 토요일의 짜인 시간표대로 일정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었다. 아내의 승용차 타이어 교체, 엔진오일 교체, 세차 그리고 퇴행성관절염으로 무릎이 좋지 않아 통증클리닉을 방문해 DNA 연골주사를 맞았다. 늘 토요일은 일주일 동안 하지 못했던 일상의 일들을 시간표에 맞춰 아주 바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마지막 세차를 위해 세차장으로 들어서고 있는데 휴대 전화벨이 울렸다. 곧장 받을 수 없어 세차장에 차를 세우고 수신 전화를 확인해 보니 고향 초등학교 여자동창생의 전화였다. 전화야 서로 알고 있으니 할 수는 있지만 자주 통화하는 사이는 아니어서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 하는 직감으로 곧장 전화를 해보았다. 키패드를 누르면 서도 아무래도 자주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왜냐면 그 여자 동창은 내 고향 동네 3년 후배이면서 내가 친동생 이상으로 아끼며 사랑해주는 ‘모모’의 누나이기도 해서 혹시 ‘모모’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 하고 생각이 든 것이다. ‘모모’는 그동안 희소질환을 앓고 있었고 치료도 되지 않는다고 나에게 토로하며 힘들어했기 때문이다.

나의 직감은 적중했고 그 여자 동창은 전화기 속 목소리가 울먹이며 “남주야, 모모 갔다.”

“모모”는 광주에 거주했다. 토요일 저녁 식사 모임, 일요일 점심 모임, 저녁 식사 모임까지 세 개의 주말 일정이 앞으로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지? 하며 그래도 후배의 상가방문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며 모든 일정을 뒤로 한 채 철도예매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주말이라 승용차를 이용해서 광주를 다녀오기는 너무 막히고 오래 걸리기 때문에 KTX 기차 예매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토요일 모든 열차 매진, 순간 어떡하지? 하면서 아, 일요일 첫차를 알아봤다. 다행히 새벽 5시 7분 차가 있었다. 이제 광주에서 서울 올라오는 왕복 열차를 검색했다. 오전 10시 이후에는 모두 매진. 겨우 오전 9시 44분 열차가 3자리 있어서 재빨리 예매하였다. 새벽 5시 7분 열차는 광주 송정역에 7시 5분 도착, 용산행 서울 열차는 9시 44분 송정역 출발 11시 36분에 용산역 도착이었다. 광주송정역에 도착해서 장례식장까지 가는데 왕복 1시간, 장례식장에 머무르는 시간은 겨우 1시간 남짓하다는 계산으로 토요일 저녁 식사 모임, 일요일 점심 및 저녁 식사 모임까지도 가능하다는 시간 계산이 나왔다. 내가 미워지는 순간이었다. 아끼고 사랑하는 후배가 마지막 나하고의 시간인데 겨우 1시간 장례식장에 머무르다 영영 작별을 고하고 온다고 생각하니 정말 내가

미워졌다. 하지만 기차가 모두 팔리고 겨우 그것도 예매했음을 합리화시키며 나를 위로했다.

사랑하는 후배는 이제 영정 속 얼굴만으로 나를 대했다. 대답도 없었다. 인생의 생과 사가 이런 것인 줄 진작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허무하고 덧없고 허탈하다는 것이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에서 가장 맘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느낌을 속일 수 없었다. 머릿속에서는 그 후배와 고향에서의 즐거웠던 일, 함께 운동하며 땀방울을 흘렸던 일, 오월에는 기타를 메고 보리밭길을 거닐며 함께 노래했던 일 등등이 주마등처럼 스쳐 가고 있었다. “모모야 잘 가거라, 고통도 아픔도 없는 하늘에서 잘살아가라.”라고 속으로 기도를 하며 분향을 마치고 함께 간 다른 고향 후배와 ‘모모’의 누나들과 ‘모모’와의 추억을 얘기하며 주어진 시간을 보내다 다시 기차에 몸을 싣고 서울로 돌아왔다. 돌아오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인생이란 무언가에 대하여 골똘히 생각해보는 순간이었다. 찰나에 생과 사가 나뉘는데 우리 인생은 아주 사소한 것을 가지고 목숨까지 걸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 너무 부끄럽기 짝이 없다. 저세상으로 돌아가면서 손바닥에 10원짜리 한 장 쥐고 갈 수 없는 인생임을 생각할 때 정말 부질없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발견했다. 앞으로의 인생은 그리 살지 않아야지 각오를 다지지만 글썽 얼마나 그 각오가 갈지…….

성서 속 전도서에 솔로몬은 이렇게 기록하였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그렇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욕심, 명예, 돈, 지위, 학벌, 큰 평수의 아파트 등 모든 것이 우리가 생을 마감할 때 헛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제부터라도 이웃들에게 여유를 갖자, 사랑을 베풀자, 못했던 용서를 하자. 이제 연말이다. 추워지는 겨울이기도 하다. 이럴 때 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랑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한다. 우리도 한번 그 사랑의 손길에 동참해 보자.

그런 와중에 적십자회비 납부고지서가 우편으로 왔다. 일정액을 지정해서 왔다. 얼른 집어들고 알린 액수보다 두 배를 은행 입금했다. 그리고 초고속으로 광주를 다녀온 후 저녁 식사모임에서 나의 의미 있는 제안으로 회비를 각출해서 먹고 마시기만 할 것이 아니라 외식보다 가정을 방문해서 식사하고 모임 시마다 각출했던 회비는 1년 동안 적립해서 내년 말 이맘때는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기로 했다. 기분이 뿌듯했다. 후배의 죽음으로 잠시나마 인생을 돌아보고 의미 있는 작은 일을 실천하기로 계획하여 올해 말은 예년보다 마음이 따뜻하다.

그래픽으로 보는 세상

